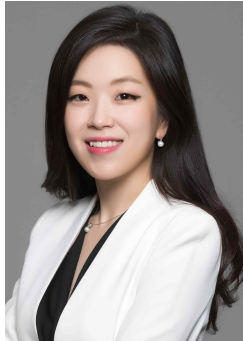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8 국가직 9급 국어(다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 문법,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 어휘완자,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나래국어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예상300제, 박문각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맛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 ④ 인왕리: Inwang-ri

★ 정답: ② - 어문규정 - 로마자 표기법

★ 정답 해설:

제시된 규정은 로마자 표기법 제2항에 대한 내용이다. '반구대'를 불임표(-) 없이 'Bangudae'라 표기하면 [방구대]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 제2항에 따라 불임표(-)를 붙여서 'Ban-gudae'라 표기할 수 있다. 비슷한 용례로는 '중앙'을 [준강]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Jung-ang'이라 표기하는 것, '세운'을 [순]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Se-un'이라 표기하는 것, '해운대'를 '하운대'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Hae-undae'라 표기하는 것 등이 있다.

★ 오답 해설:

① 섬[島]으로서의 '도'는 불임표(-)를 넣지 않고 붙여서 써야 하므로 '독도'를 'Dok-do'라 표기하는 것은 틀린 표기이다.

예) 독도 Dokdo, 거제도 Geojedo

③ '독립문'은 [동립문]으로 발음하고, 로마자 표기법 제6항에 따르면 자연 지명명, 문화제명, 인공 건축물명은 불임표(-) 없이 붙여 쓰므로 'Dongnimmun'이라 표기한다. 따라서 음운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음절마다 불임표(-)를 넣은 'Dok-rip-mun'은 틀린 표기이다.

④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불임표(-)를 넣는다.”는 로마자 표기법 제5항에 따라 ‘인왕리’는 ‘Inwang-ri’라 표기한다. ‘Inwang-ri’의 불임표(-)는 발음상 혼동이 우려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 구역 단위 표기의 원칙상 쓰는 것이므로 제시된 규정과 관련이 없다.

문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조선시대에는 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 ②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 ③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 ④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 정답: ② - 독해 - 주제

★ 정답 해설:

지문은 ‘언간’의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고, 그중에서도 성별에서 뚜렷이 나타나 수신자나 발신자 한 쪽에는 반드시 여성이 관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언간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는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계층과 무관하게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는 것이 지문의 중심내용이다.

★ 오답 해설:

① 조선시대의 언간이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갖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이는 언간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는 중심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언간’이 ‘내간’으로도 일컬어진 것은 맞으나, 그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언간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는 중심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④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도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언간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는 중심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문 3. (가) ~ (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수학 성적은 참 중군. 국어 성적도 좋고.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중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꿔 쓴다.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쓴다.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④ (라):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 정답: ③ - 쓰기(작문) - 고쳐쓰기

★ 정답 해설:

어미 ‘-면서’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져 있음을 나타내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어미 ‘-면서’는 ‘-고’로 바꾸지 않아도 첫 번째 의미에 따라 동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다만, (다)의 서술어 ‘멈추다’와 ‘달리다’가 동시성을 갖는 서술어가 아니므로 ‘멈추다’를 완료한 후 ‘달리다’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어미 ‘-고’로 바꾸는 것이다.

★ 오답 해설:

① 보조사 ‘은’은 같은 묶음 안에 드는 관련 항목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띠었음을 나타내는 표별 보조사이므로 ‘수학 성적은 참 중군.’이라고 쓰면 수학 성적은 좋은 반면, 국어 성적은 좋지 않다고 대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뒤 문장에서 같은 묶음 안에 드는 관련 항목들이 서로 같은 가치를 띠었음을 나타내는 협수 보조사인 ‘도’를 사용하여 국어 성적 역시 좋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조사 ‘은’을 주격 조사 ‘이’로 바꾸어서 앞뒤 문장의 의미가 호응하도록 맞추어 준다.

참고) 보조사 ‘은⁰⁶’

「1」((반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2」((반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기선은 증기의 힘으로 달린다.

「3」((반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쉬기도 해라.

② 인용절을 쓸 때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직접 인용은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인용 부호(따옴표) 뒤에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반면, 간접 인용은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간접 인용한 것으로, 인용 부호(따옴표) 없이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한다. 따라서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한 (나)에서는 인용 조사를 ‘라고’로 바꾸어야 한다.

④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라)의 문장은 대통령이 ‘진지한 연설’을 수단 삼아 국민을 설득했다는 의미이므로 격 조사로 ‘로써’를 써야 한다.

문 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① ㉠

② ㉡

③ ㉢

④ ㉣

★ 정답: ③ - 독해 - 비문학 - 논지 전개(통일성)

★ 정답 해설:

<보기>의 통일성을 근거로 제시된 지문에 지문을 판단할 때, ㉣은 통일성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지문의 내용은 ‘나’가 수학 시간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내용과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구성되어있는 반면에,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은 ‘나’가 수학시간이 재미있었던 이유라는 중심 내용과 부합하지 않기에 ㉣이 통일성에 어긋난다.

★ 오답 해설:

① ㉠은 ‘나’가 수학 시간이 재미있었던 이유를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뒤 문장의 ‘수학 선생님’과 이어지기에 적절하다.

② ㉡은 수학 선생님의 유머의 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이기에 적절하다.

④ ㉣은 수학 성적이 좋아진 이유가 중심 내용인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중심 내용과 부합하는 하위 내용이기에 적절하다.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려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 ①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②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③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④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 정답: ㉔ -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달’이 되어서라도 ‘고운 님’에게 닿고 싶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의 ‘아가씨’는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도 못하고 돌아와’ 흐느끼고 있으므로 소극적 태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작품해설]

(가) 정철, <내 마음 배어 내어> - 2017년 EBS 수능 특강 수록작

- 갈래: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 성격: 애상적, 감상적, 연군가
- 특징: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인 ‘달’로 형상화함.
비유와 상징의 수법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냄.
수 표현(구만 리)을 통해 임과의 정서적 거리를 드러냄.
- 해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칼로 베어 내어 달을 만들어서 임금이 계신 궁궐에 비춤으로써, 자신의 충정을 임금께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 주제: 연군의 정, 임금에 대한 충성심
- (나) 임제, <무어별> - 2018년 EBS 수능 특강 수록작
- 갈래: 한시, 5언 절구
- 성격: 애상적, 서정적, 낭만적
- 특징: 간결하고 담백한 표현으로 절제된 언어의 아름다움을 구사함.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시적 상황을 전달함.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섬세한 표현을 이루어냄.
감정을 절제하여 서러움과 슬픔까지도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아냄.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이별한 소녀의 애틋한 마음
- 해제: 이 작품에서 보듯 작가는 여성적인 섬세한 감각으로 이별을 당한 여인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포착해 내고 있다. 사랑하는 임과 헤어지면서도 남이 부끄러워 이별의 말 한 마디 못하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손에 잡힐 듯하다. 이 작품에서 배꽃처럼 흰 달(梨花月)은 이 작품의 배경의 구실을 하면서 동시에 임의 모습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작중 화자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는 작품 내적 기능을 하는 소재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자유분방한 낭만주의적 경향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권위와 법도가 중시되던 봉건주의적 시대의 남녀 사랑이란 절절한 마음속에만 간직될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다. 임제는 송순(宋純)·정철(鄭澈) 등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風靡)했던 풍류남아요, 재사(才士)였다. 그는 ‘수성지(愁城誌)’라는 뛰어난 소설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시조의 작가로도 탁월한 재주를 보였고, 한시의 창작에서도 독특한 경지를 개척했다.

★ 오답 해설:

- ①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인 ‘달’을 걸어 놓고 싶은 곳이다. 끝없이 잇닿아 멀고도 넓은 하늘에서 ‘고운 님 계신 곳’을 비추고 싶다는 의미이다. (나)의 ‘아가씨’는 남부끄러워 이별의 인사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흐느낀다. 따라서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 ③ (가)는 화자중심의 시로, ‘고운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고운 님’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나)는 대상중심의 시로,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관찰하는 시적 대상이다. ‘아가씨’는 시 속의 주인공이며 화자는 그녀의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는 관찰자일 뿐이다.
- ④ (가)의 ‘달’은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한 대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달’은 ‘아가씨’의 심리와 조화를 이루며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상이다.

문 6. ㉑ ~ ㉓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㉑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툭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땀처럼 맺은 줄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
㉒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㉓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짜르짜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빠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곡재구, 「사평역에서」 -

- ① ㉑ - 여러 개의 난로가 지퍼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㉒ -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하였다.
- ③ ㉓ -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 ④ ㉔ -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 정답: ㉔ - 독해 - 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화자는 불을 켜면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한 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화자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힘이 ‘그리웠던’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해설]

곡재구, <사평역에서> - 2014학년도 대수능 B형 출제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회고적, 애상적, 묘사적
- 특징: 간이역 대합실을 장면화하여 묘사적으로 제시함.
감각적 이미지로 감성적이고 쓸쓸한 분위기를 연출함.
쓸쓸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고단한 삶을 형상화함.
-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애환

• 해제: 이 시는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대합실 안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허름한 공간 안에는 툇밥 난로가 지펴져 있고 막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기침을 하거나 졸면서 막자를 기다리는 그들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이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주변부 인생이 겪는 서러움과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합실의 풍경에 대한 뛰어난 묘사와 자연스러운 서술, 반복적 변주의 시상 전개 방식 등으로 주변부 사람들의 고단하고 서러운 삶과 그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호소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유리창마다 툇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서 안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합실을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러 개의 창으로 툇밥 난로의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허름한 공간의 툇밥 난로는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안온함'은 시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 ② '청색의 손바닥'과 '불빛'은 대조적 색채 이미지로 차가움과 따뜻함의 촉각적 대조까지 이끌어 낸다. 이는 고단한 삶과 '그리웠던 순간들'의 대조와 연결된다. 따라서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와는 무관하다.
- ③ '오래 앉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는 막자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대합실의 모습을 청각적으로, 시각적·후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일 뿐이다. 이들의 비관적 심리는 알 수 없으며 공공소에서 흡연을 하니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작자의 의도가 아니다.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옥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찢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옥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옥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읊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톡 났다. 장인에게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는가 애벌는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푹푹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김유정, <봄봄> -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됃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현대 산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장인이 '마름(소작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장인에게 닭을 보내지 않거나 품을 안 주면 소작할 땅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미리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던 사람에게 그 땅의 소작 권리가 넘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서술자를 통해 요약적으로 직접 제시되었다. 대화나 행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작품해설]

지문: 김유정, <봄봄>

- 성격: 풍자적, 해학적, 비관적
- 시점: 1인칭 주인공 (어리석은 서술자 =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 배경: 시간적 배경 - 1930년대, 공간적 배경 - 강원도 산골

• 특징: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해학적이고 토속적인 문장, 방언과 비속어 사용, 언어유희

- 주제: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
- 해제: 이 소설은 농촌을 배경으로 데릴사위와 장인이 혼인 문제를 두고 벌이는 갈등을 과장되고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우직하고 순진한 1인칭 주인공인 '나'와 음흉한 장인의 갈등이 웃음을 짓게 하지만 이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이 들어있다. 딸과의 결혼을 약속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장인의 모습을 통해 가진 자의 횡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감각적인 토속어와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해학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전체 줄거리: '나'는 점순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3년 7개월 간이나 변변한 대가 없이 머슴 일을 하고 있다. 장인은 점순이가 덜 컸다는 이유로 혼례를 미루고 '나'는 구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구장은 장인의 편을 든다. 결국 '나'는 장인과 사남을 하게 되고 점순이는 아버지의 편을 든다. 허탈해진 '나'를 장인이 다독이며 혼례를 약속하고 '나'는 다시 일터로 향한다.

★ 오답 해설:

- ① '번이 마름이란 ~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라고 하며, 마름을 동물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호박개'란, '뺨대'가 굵고 털이 복슬복슬한 개'를 의미한다.
- ② '이놈의 장인님'은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한 해학적 표현이다.
- ③ 손버릇이 못된 점, '옥필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사위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함부로 하는 점, 소작하는 땅을 두고 사익을 추구하는 점 등을 통해 장인의 됃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문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한다.

- ① 協商
- ② 協助
- ③ 協奏
- ④ 協贊

★ 정답: ① - 독해 - 빈칸 추론 + 어휘 - 한자

★ 정답 해설:

이익과 관련되어 갈등을 인식한 주체들의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지문의 내용상, 協商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協商(화합할 협, 장사 상):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논의함.

★ 오답 해설:

- ② 協助(화합할 협, 도울 조): 힘을 보태어 도움.
- ③ 協奏(화합할 협, 아릴 주): 독주 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하면서 독주 악기의 기교가 돋보이게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
- ④ 協贊(화합할 협, 도울 찬): 「1」 힘을 합하여 도움. 「2」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문 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 정답: ㉠ - 독해 - 내용 확인

★ 정답 해설:

초고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를 바르게 고쳐서 책을 완성하였다는 뜻으로 校訂의 쓰임은 적절하다.

- 校訂(학교 교, 바로잡을 정):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예 철수는 그 수험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교정해 가면서 읽었다.

- 校正(학교 교, 바를 정): 교정쇄와 원고를 대조하여 오자, 오식, 배열, 색 따위를 바르게 고침.

예 교정을 보다/교정을 안 했는지 책에 오자가 많다.

- 矯正(바로잡을 교, 바를 정): 「1」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예 말더듬이 교정/척주 교정.

「2」 『법률』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 예 갇생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

★ 오답 해설: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叉 검토하시오.

- 交叉(사귄 교, 갈래 차):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예 만감의 교차/도로와 철도의 교차 지점/두 직선의 교차/그 웃감은 씨실과 낱실의 교차가 뚜렷했다.

- 交差(사귄 교, 다를 차):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

- 較差(견줄 교, 다를 차): 최고와 최저의 차. 흔히 어떤 기간 동안 기온이나 강수량 따위를 관측한 값의 최대와 최소의 차를 이른다.

예 환절기에는 밤과 낮의 기온의 교차가 심하다.

③ 전자 문서에 決裁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決裁(결단할 결, 마를 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예 결재 서류/결재가 나다/결재를 올리다.

- 決濟(결단할 결, 건널 제): 「1」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2」 「경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예 결제 자금/어음의 결제.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再考 바랍니다.

- 再考(두 재, 생각할 고):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예 그 일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므로 재고의 여지도 없다

- 提高(끌 재, 높을 고): 쳐들어 높임.

예 생산성의 제고/능률의 제고/이미지 제고

문 10. ㉠ ~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함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종종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종종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체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체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① ㉠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② ㉡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③ ㉢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는 각자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④ ㉣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 정답: ㉡ - 독해 - 사례 추론 + 이론

★ 정답 해설:

㉠은 애매어의 오류인데,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말을 동일한 의미의 말인 것처럼 애매하게 사용하거나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뜻한다. ㉡에 있는 두 문장 모두 ‘부패’라는 동일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동일한 의미로 잘못 이해하여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결론 내리고 있다. 실은 각각 문장에서 부패의 의미는 달리 쓰였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부패는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 또는 그런 현상’을 뜻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부패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참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한다.

죄인: 원죄를 지닌 인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오답 해설:

① ㉠ 우연의 오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를 뜻한다. 그러나 ㉠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소크라테스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 우연의 오류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참고)우연의 오류

- 요즘 애들은 통 버릇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남들로부터 버릇없이 군다는 말을 듣는데, 태네 아이도 그렇겠지요?

③ ㉢ 결합의 오류는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체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뜻한다. 그러나 ㉢에 있는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는 각각의 원소에서 집단의 특성을 추론한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각각 원소의 특성을 추론했으므로 이는 ‘결합의 오류’가 아닌 ‘분해의 오류’에 대한 예시로 적절하다. 따라서 결합의 오류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참고)결합의 오류

- 나트륨이나 염소는 유독성 물질이야. 그러니 염화나트륨도 유독성 물질이지.

④ ㉣ 분해의 오류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체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뜻한다. 그러나 ㉣에 있는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전체로부터 각각의 원소들의 성질을 바탕으로 집합 전체도 그러하다는 ‘결합의 오류’에 대한 예시로 적절하다.

※ 참고(분해의 오류)

-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야. 그러니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돈이 많을 거야

문 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보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 정답: ③ - 독해 - 설명 방식

★ 정답 해설:

지문은 건축가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재료의 속성과 완성된 건물의 구성 분자가 서로 다른 것을 통해, 문학 속 허구의 세계가 실제 생활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이 달라져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와 실제 생활이 다름을 유추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도 마라톤에서 인생을 유추하여 '목적을 지닌 인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인상주의 화가들도 사실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명 과정에서 유추는 사용되지 않았다. ①은 비교 방식이 사용되었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를 인물, 배경, 사건 3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유추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중에 학문적으로 출중한 이들의 예시를 나열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유추는 사용되지 않았다.

문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 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작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 ②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 정답: ② - 독해 - 내용 일치

★ 정답 해설:

지문에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것을 열망했다'는 것을 통해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는 선지는 지문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지문에서 세잔, 고흐, 고갱은 각각 인상주의를 비판하며 각자 다른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세잔의 해결 방식은 입체주의를, 반 고흐의 방법은 표현주의를, 고갱의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을 이끌어 냈다. 따라서 ①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한다.
- ③ 지문에서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통해 ③이 지문의 내용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 ④ 지문에서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라고 진술된 것을 통해 ④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제3장'의와 같이 붙여 쓴다.

☆ 오답 해설:

① 어미 ‘-르길’과 의존 명사 ‘것’을 활용한 ‘~르 것들’의 준 형태인 ‘길’을 구분해야 한다. 둘은 어미와 의존 명사로 치환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어미로 치환했을 때 의미가 통하면 어미, 의존 명사로 치환하여 의미가 통하면 의존 명사이다. 또한, 어미일 경우에는 앞말과 붙어 쓰고,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이처럼 좋은 길 어떡해’는 ‘이처럼 좋은 것을 어떡해?’와 같이 의존 명사로 치환할 수 있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참고) 어미 ‘-르걸’

「1」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예 그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걸./너보다 키가 더 클걸.

「2」((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구어체로)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벼운 위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예 차 안에서 미리 자 돌걸./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걸.

③ 어미 ‘-ㄴ지’와 의존 명사 ‘지’를 구분해야 한다. 어미 ‘-ㄴ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또는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인다. 반면, 의존 명사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사를 진행한”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③은 ‘진행한 지’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참고) 어미 ‘-ㄴ지’

[1]((‘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예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2]((‘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예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④ 의존 명사와 ‘자’와 접미사 ‘-차’를 구분해야 한다. ④의 ‘차’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주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차(次)’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반면, 접미사 ‘-차(次)’는 ‘연구자, 인사자, 사업자’와 같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문 14. ‘깎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깎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받음된다.
- ② ‘깎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받음된다.
- ③ ‘깎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깁꼬’로 받음된다.
- ④ ‘깎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깁찌’로 받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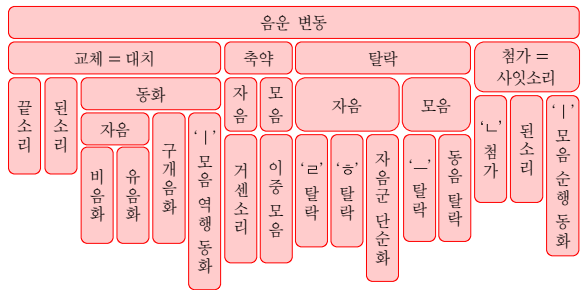
☆ 정답: ① -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변동

☆ 정답 해설:

꺾는 → [꺅는] → [깡는]

‘깁는’은 음절의 끝소리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ㄱ]으로
바뀐 뒤, ‘는’의 초성 ‘ㄴ’과 만나 비음화(교체)되어 [깁는]으로 발음된다.

참고) 음운의 변동 현상(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p. 39)



☆ 오답 해설:

② 꺾아 → [까까]

‘꺾아’는 어간 ‘꺾’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어미 ‘-아’ 만났으므로 그대로 연음하여 [까까]로 발음한다. 탈락 현상은 적용되지 않았다.

③ 꺾고 → [깎고] → [깎꼬]

‘깎고’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기]으로 바뀌고, ‘받침’[ㄱ(ㄷ, ㅈ, ㅊ, ㅋ, ㆁ), ㄴ(ㄸ, ㅌ, ㄹ), ㄷ(ㅌ, ㅍ, ㅊ, ㅅ), ㄹ(ㄺ, ㄻ, ㄼ, ㄽ, ㄾ)]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된소리되기(=경음화 현상, 교체)에 의해 [깎꼬]로 발음된다. 도치 현상은 적용되지 않았다. ‘도치’는 한 단어 안에서 두 음소나 음절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이다. ‘빋복’이 ‘배뿔’이 된 것이 도치 현상의 대표적인 예인데, ‘빋복’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초성의 종성의 자음이 ‘ㅂ’과 ‘ㄱ’이 자리를 바꾸어 오늘날의 ‘배뿔’이 된 것이다.

④ 깎지 → [깍지] → [깎찌]

“짜깁”은 음절의 끝소리 ‘ㄱ’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ㄱ]으로 바뀌고, “발칠” [ㄱ(기, ㅋ, ㆁ, 리), ㄷ(入, ㅅ, ㅈ, ㅊ, ㅌ), ㅂ(표, 래, 래, ㅁ)]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된소리 되기=경음화 현상, 교체)에 의해 적용되지 발음된다.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은 적용되지 않았다.

문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화를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 ①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 ②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한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 ③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합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 ④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서 더 크게 받을 것이다.

★ 정답: ③ - 독해 - 비문학 - 추론

★ 정답 해설:

포스트휴먼 개념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적 결합을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한 존재가 아니다. 포스트휴먼의 형태는 지문에서도 말하듯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포스트휴먼은 기존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수명, 인지 능력, 감정이라는 한계를 엄청나게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인간에 대한 개념을 새로 구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②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이지만 그것의 형태는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 안의 업로드 형태'일 수도 있으며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 결과'일 수도 있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④ 포스트휴먼 개념에서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인공지능' 형태일 수도 있고, '업로드 형태',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 과학 기술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문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 정답: ① - 의미론 - 단어 간의 의미 관계 - 반의 관계

★ 정답 해설:

'크다-작다'는 중간항이 존재하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상태로 동시 부정도 가능한 반대 관계(=정도 반의어)이다.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①은 모순 관계(=상보 반의어)의 내용이다.

참고) 반의(反義) 관계(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p. 316)(문법의 단권화, p. 80)
한 쌍의 단어가 모든 의미상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한 가지 요소만 반대인 관계

① 모순 관계(=상보 반의어): 중간항이 허용되지 않고 동시에 참이 될 수도,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대립 관계

예) 남자-여자, 참-거짓, 삶-죽음, 합격-불합격, 출석-결석

② 반대 관계(=정도 반의어): 중간항이 허용되고 동시에 부정이 가능한 대립 관계

예) 가볍다-무겁다, 넓다-좁다, 크다-작다, 좋다-나쁘다, 덥다-춥다

③ 상대 관계(=방향 반의어): 서로 관계되는 두 실체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대립 관계

예) 위-아래, 앞-뒤, 스승-제자, 사다-팔다

★ 오답 해설:

② '출발-도착'은 출발하지 않았다는 한 쪽 단어의 부정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출발도, 도착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참-거짓'은 동시에 참이 될 수도,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모순 관계(=상보 반의어)이다. 참이 아닌 경우에는 거짓이고, 거짓이 아닌 경우에는 참인, 즉, 한 쪽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의미한다.

④ '넓다-좁다'는 중간항이 허용되고 넓지도, 좁지도 않은 상태로 동시에 부정이 가능한 반대 관계(=정도 반의어)이다. '넓다'가 증명되는 경우, 적어도 좁지는 않은 것을 의미하고, '좁다'가 증명되는 경우 적어도 넓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문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씀을 ㉠ 슬브리 하디 天命을 疑心히실씩 꾸므로 ㉡ 뵈아시니 놀애를 브르리 ㉢ 하디 天命을 모르실씩 꾸므로 ㉣ 알외시니

(말씀을 아뢴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려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 ㉢에서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정답 해설:

㉢ '알외시니'의 현대어 풀이는 '알리시니'이다. '알리시니'는 기본형 '알다'에 사동 접미사 '-리-'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사동사로 파생한 형태이다. 이를 '알외시니'와 대응해 보면, 어간 '알-'+사동 접미사 '-외-'+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어미 '-니'로 분석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 '슬브리'의 현대어 풀이가 '아뢴 사람이'인 것으로 보아 '슬브리'는 어간 '슬브-'+관형사형 전성 어미 '-리'+명사 '이'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 '이'이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이'를, 모음 뒤에서는 'ㅣ'를 썼다. 또한, 'ㅣ' 모음 뒤에서는 생략하였다. 따라서 ㉠은 'ㅣ'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② ㉡ '뵈아시니'의 현대어 풀이가 '재촉하시니'인 것으로 보아 주체 높임을 한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자음 어미 앞에서 '-시-', 모음 어미 앞에서 '-샤-'이다. '뵈아다'는 '재촉하다'의 옛말이다.

③ ㉢ '하디'의 현대어 풀이는 '많지만'이므로 '-디'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아니다.

문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명숙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 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 ①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 ②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 ③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 ④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 - 비문학 - 내용 일치

★ 정답 해설:

지문에서 점술사의 신라가 발전할 거라는 예언이 적중한 다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고,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신라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는 선지는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 오답 해설:

- ① 점술가가 신라가 크게 발전할 거라는 예언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했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② 중국의 월병이 한국의 비빔밥을 본떠 만든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말한 바는 한국에서 지역 단합을 위해 수천 명 분의 비빔밥을 만드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는 월병이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②는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④ 둘째 문단의 둘째 줄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을 통해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선지는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낮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라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 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요?”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별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

문 19. ㉠ ~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정답: ③ - 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중이 박장대소 하며 ㉡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냐’는 말에 양소유는 ㉢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라고 대답하는 데 이를 통해 ㉢의 일은 입몽 전의 일, 즉 성진이 겪은 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고 그 다음은 소유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이며, 그 다음은 ㉣ ‘꿈속에서 잠깐 만난 것’은 소유가 토번을 정벌할 때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는 중을 만나게 된 현재의 시점이 되므로 제일 나중에 온다.

[작품해설]

지문: 김만중, <구운몽>

• 해제 : 이 작품은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어머니 윤씨 부인을 위로하고자 지었다고 전해지는 몽자류 소설로 주인공 성진이 하룻밤 꿈에서 겪은 일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작품의 골격 구조인 환몽 구조는 주인공이 이를 수 없는 입신양명과 부귀공명을 간절히 원하다가 꿈의

다음 이유진 나래 카페: <http://cafe.daum.net/naraeyoujin>

현실에서 그것을 이루고 꿈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세속적 욕망이 허망함을 깨닫는 '현실 → 꿈 →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의 공간은 천상이고 꿈 속의 공간은 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천상은 불교적 세계를, 지상은 유교적 세계를 그리고 있다. 유교적 공명주의와 불교의 공(空) 사상, 도교의 신선 사상 등이 융합되어 한국인의 정신적 특질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 주제 : 인생무상의 깨달음과 허무 극복
- 전체 줄거리 : 중국 당나라 때, 남악 형산 연화봉에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 대사가 법당을 짓고 설법하고 있었다. 하루는 육관 대사가 제자 성진을 보내 용왕에게 사례하도록 했는데, 용왕의 술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팔선녀와 석교에서 만나 서로 희롱한다. 선방(禪房)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의 미모에 도취되어 불문(佛門)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의 부귀영화를 원하다가,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태어난 성진은 과거에 급제해 입신양명하고 여덟 남자와 인연을 맺어 두 부인과 여섯 첩으로 삼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양소유는 갑자기 나타난 호승에 의해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성진은 육관 대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팔선녀도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성진은 육관 대사의 정법을 물려받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간다.
- 구성
 - 현실: 불교(정신)와 유교(물질, 부귀공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진
 - 꿈: 부귀공명을 성취하는 양소유
 - 현실: 육관 대사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 성진

문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은 꿈에서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된 뒤 꿈에서 깨게 된다.
-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남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④ '승상'은 능과 남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 정답: ① - 독해 - 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승상'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서 '중'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으므로 옳은 내용이다.

★ 오답 해설:

- ② '승상'은 '중'에 의해 꿈에서 깨게 될 때까지도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로 희롱하나요?"를 통해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상이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된 뒤에 꿈에서 깨게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여덟 남자가 사라지고 난 뒤의 '승상'의 심정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중'의 진의를 의심한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지문에는 '승상'이 능과 남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주체가 '중'임이 나와있지 않고 또한 이를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모습 또한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유진

나/래/국/어

합격생들이 보장하는 국어!

현장 수강생들을 위해
확실히 차별화 시스템

우월한 독해 [필수문학]

4월 3일(화) 개강
18:40-22:20 [4주]

교재 : 우월한독해(필수문학 4권)

동형문제풀이

지방직(서울시 제외) **수강료 10% 할인!**

[지방직]
다치고 고득점 내 인생 최고점
4월 16일 개강 [4주]

교재 : 배우고2회분+지방직(서울시 제외)과 유사문항

[서울시]
다치고 고득점 서울시 유형 복제모고
5월 21일 개강 [4주]

10:00-13:00
교재 : 배우고2회분+국립국어원합기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 노원점 02-815-7819, 3280-9990 온라인 0213489-9500